

일주문

제4회 법화사 연꽃축제
서귀포 법화사 주지 도현 스님은 8월 7-8일 법화사 일대에서 제4회 법화사 연꽃축제를 개최한다. (064)738-5225

구미 다문화음식점 개점
구미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진오 스님은 7월 28일 구미역사 3층에 다문화음식점 '多-ZONE'을 개점했다.

역삼수련관 아토피 캠프
서울 역삼청소년수련관 관장 주경 스님은 8월 12-14일 황성 숲체원에서 '숲에서 뛰어노는 아토피 캠프'를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 명예회장 추대
김선근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는 한국 불교학회 회장 임기를 마치고 첫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중앙신도회 문화재 환수위원회 모집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8월 23일까지 제2기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단을 모집한다. (02)733-7278

대불련 총동문회 봉정암 순례
명호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 회장은 8월 14-15일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제 8회 대불련 총동문대회를 열고 앞서 봉정암을 순례한다.

공불련 10주년 기념전시회 공모
하복동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8월 20일까지 창립 10주년 기념 전시회 작품을 공모한다. 전시회는 10월 8-17일 열린다.

조계사 원심회 여름수련회
김장경 조계사 원심회 회장은 8월 7-8일 남해 운문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한다. (02)720-4528

문광부 종무관 임명

이병두 前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사무총장이 7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 종무관에 임명됐다. 이 신임 종무관은 1955년 태어나 한국외대 이태리어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화학과에서 박사과정 중이다.

문수선원 개원한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

4대강 공사는 욕망에 근거한 일

"4대강 지키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4대강 사업은 권력과 자본, 욕망과 이기심의 집합체입니다. 4대강 반대 운동은 국민과 정부가 싸워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광주 문빈정사 주지 법선 스님(사진)은 영산강 생명살림운동의 중심점이 될 '문수선원'을 7월 29일 문빈정사와 영산강 승천보 공사현장 2곳에 개원했다.

법선 스님이 발심한 계기는 문수 스님의 소신공양에서 비롯됐다. 스님은 "환경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뿐인 운동, 관념적인 불교에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실천하는 4대강 사업 저지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출가자들조차 아주 작은 것도 잃지 않으려고 한다. 소임 맡은 절과 신도를 유지하기에 급급하고, 생령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과 생명 등을 운운하지만 모두 말뿐이다." 법선 스님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난 문수 스님에게 빛을 진 것처럼 미안하다"며 "같은 출가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이해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이 영산강 공사현장에 선원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의 활동공간을 종교인이 확보해준다는 것"이지만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의 참여와 기도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승천보 공사현장에는 컨테이너를 두려고 했지만 정부의 제재로 천막을 치고 활동하게 됐다. 법선 스님은 문수 스님 49재를 앞두고 지역 스님들과 영산강에 문수선원을 세워 환경운동을 펼치기로 마음을 모았다. 문수

선원은 법선 스님 외에 광주 원각사 주지 도제 스님, 노래하는 스님 범능 스님을 주축으로 운영한다. 문수선원에서는 공개 질의서 등을 통해 종단과 호남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야권 정당에 대한 강력한 참회와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법선 스님은 "최근 영남·성당 스님이 4대강 찬성 의사를 밝힌 것은 4대강 문제 등한시 하는 종단 내부의 문제이자 불교계 상층부의 모순이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호남지역 영산강 4대강 사업이 추진되는 데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와 더불어 야당의 책임이 크다"며 "4대강 공사를 반대하는 당론에 반대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박준영 도지사를 내버려 두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수선원은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문빈정사에 세워지는 문수선원은 지속적인 환경교육과 토론의 장을 펼쳐나간다.

또 영산강지킴이시민행동(공동대표 임낙평)에서 활동 중인 200여 개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개신교 환경단체 등과도 연대활동을 펼친다.

이상언 기자

조동종 총무원장 덕우 스님

도제양성 위해 경주에 교육원 설립

도제 양성은 종단의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을 빼놓고는 도제 양성을 위한 제도와 기반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각 종단의 지도자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이자 관심사가 도제 양성이다.



교육원은 출가 희망자를 위한 행자교육, 종도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는 목조선 수행센터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동종은 목조선(默照禪)의 전통을 잇고 있습니다.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열린 운영을 할 것입니다."

대은 스님은 '목조선' 얘기가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다. "목조선은 일본 불교의 수행법으로 잘못 알고 있어 목조의 참뜻은, 부처의 씨앗이 이미 마음 밭에 심어져 있으니 묵묵히 묵(默)조(照)하여 발(發)하면, 깨달음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동산양계 대선사에 의해 선법이 정착되어 우리나라에는 9산선문 중 수미산문을 개창한 이엄진철 대선사에서 목조선 선을 전파하셨다."



중국 조동정중에서 법을 이어받음을 기념해 중국 소림사에 세워진 조동종 기념비 앞에서 조동종 스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 대은스님은 도제 양성을 위한 첫 사진 한 자락을 펼쳐보였다.

"교육원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경주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필지 중 1필지 6060㎡(2만 평)를 이미 매입했고, 나머지도 매입을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은 스님은 "요즘은 너무 쉽게 스님이 되어버리니까..."라며 도제 양성 부실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대은 스님은 69년에 출가해 71년 8월에 수계했으나, 행자로 2년을 보냈다. 서울 법륜사 주지를 역임한 사인 도계 스님을 모시면서 "백사게 했다"고 회고했다.

행자교육은 최소 6개월을 계획하고 있다. 승려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기 위한 습의와 초발심사경문과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소의경전을 익히기에는 적은 기간이지만, 지금의 종단 상황에서 6개월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기존 승려는 년 1회 이상 연수교육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역불정책과 일제치하를 거치면서 법맥이 끊겼다. 1989년 현 조동종 지명 스님을 중심으로 조동종을 창종하여 법맥 잇기에 나섰다. 마침내 94년 7월 중국의 조동정종(曹洞正宗) 송산 소림사 30대 방장인 청심소희(淸心素喜)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60여 조동종 스님들이 법을 이어받았다. 지금 소림사 사천왕문 앞에는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조동종 소속 사찰은 350개.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여 사찰에 이르렀으나, 분당금 미납·연수 불참 등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분란을 일으키는 사찰을 과감하게 제적했다.

"군소종단의 현실에서 제적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체계가 바로 잡혀야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종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조동종은 사찰이 위치한 지역사회에 회합하는 종단을 지향합니다." 정성운 기자

태고 발자취 집대성 출간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평전 출판기념 법회

태고종종 태고보우 국사 탄신 제 709주년을 맞아 태고보우 국사와 국사에게 임제법맥을 전수한 석육청공 선사의 평전이 출간됐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무공)은 7월 26일 한국불교전통문화진흥관에서 <석육·태고 평전> 출판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석육·태고 두 조사를 청하는 태고종 행정부원장 청봉 스님의 설선의 봉독, 대륜불교문화연구원장 대은 스님의 경과보고, 대륜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무공 스님의 평전 봉독과 총무원장 인공 스님에게 증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사장 무공 스님은 인사말에서 "석육·태고 두 조사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의 귀감이 되고 근본적 가르침이기 때문에 15년간 연구·조사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 한권의 책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인공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모든 종파를 회통한 통합불사를 실현하신 태고보우 국사의 사상과 행적을 기리고 널리 선양하며, 태고종으로서의 자긍심을 크게 고양하기 위해 <석육·태고 평전>이 발간됐다. 평전은 시대적 화두인 소통과 화합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고 원융정신 구현과 불교사적인 귀한 자료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육·태고 평전>은 대륜불교문화연구원 태고사상 제6집으로 편저됐다. 책에는 태고 스님의 발자취와 구법의 길, 태고 스님에게 불조의 심인을 전해준 석육 선사와의 만남, 원융불교의 실천, 태고와 석육의 어록, 탐비명, 구법논문 등이 400여 쪽 분량으로 담겨져 있다.

조동섭 기자

행원문화상 수상
각목·성륜 스님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은 7월 22일 2010년 제1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로 역경분야에 각목 스님(사진·좌), 예술분야에 성륜 스님(사진·우)을 각각 선정했다.

역경부문 수상자 각목 스님은 초기 불전연구원을 설립 운영하며 초기불전을 한글로 옮기는 번역불사를 20여 년 간 진행했다. 예술부문 수상자 성륜 스님은 불교회화를 현대회화와 접목한 작품으로 불교철학과 선사상을 해외에서 펼쳤다. 시상식은 9월 14일 서울 여의도대 대극장에서 열린다. (02)586-6521 노덕현 기자

2010년 하반기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대학원

◆대학장 : 호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 ◆모집학과 : 사미과 (주2일 교육,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부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0년 9월 9일 목요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작법부 -

불교예술대학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 ◆강의내용 : 사물타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0년 7월 30일 ~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0년 9월 7일 화요일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불교교리 : 경, 율, 론, 선, 밀교
◆불교의식 : 조석예불, 불공, 시식, 장엄예불 등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목요일 오후 3시까지
◆교육장소 : 제천 금강사(충북 제천시 모산동)
◆개 강 : 9월 8일 (수) 오후 2시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도기스님, 대각스님, 서무선박사님, 김진걸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 활안 한정섭스님의 경전 강의 -
월요경전반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기초반 1시 30분 연구반 3시 30분
◆개 강 : 2010년 9월 6일 월요일